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 01

1. 2019년 세계무역환경은 WTO 출범 이래 최악으로 평가:
불확실성 심화로 무역발 세계경제위기 가능성 고조
2.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가중 전망:
일방·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3. 불확실성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新글로벌 경영전략 세워야

▪ 용어 해설

▣ 2020년 세계 주요 정치·경제 일정 | 10

▣ 주요 통상 일지 | 11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 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 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1. 2019년 세계무역환경은 WTO 출범이래 최악으로 평가: 불확실성 심화로 무역발 세계경제위기 가능성 고조

- 미-중 무역분쟁의 격화로 당사국 뿐 아니라 제3국에서도 많은 피해 발생
- 국가안보 등 자국이익보호를 근거한 보호무역주의 및 자의적인 무역제한조치 확산
- WTO 다자무역체제 신뢰 지속적 추락으로 자유무역 동력 상실
- CPTPP 조기이행, RCEP 타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무역환경 개선엔 역부족
-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사태발생으로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가

2019년 세계무역환경은 극도의 혼란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2018년 시작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무역이 줄어들고 나아가 소비와 기업투자까지 위축되는 등 세계경기의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었다. 분쟁의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제3국에서도 우려할만한 경제적 피해가 나타났다. 중국은 대미국 수출 감소와 대미투자 제한으로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 미국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부과로 피해를 입었으며, 총생산의 17%를 중국에 수출하는 미국 농민들 역시 큰 손해를 입었다. 우리나라도 2019년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10% 정도 줄었고 대중국 수출은 17% 가량 줄어드는 등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과 경제 성장률 둔화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12월 소위 '1단계 합의'를 발표했고 1월 15일 서명이 예정되어 있다. 아직 공식 서명 전단계로 합의문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중국이 미국 농산물을 큰 규모로 수입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금융시장 개방,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이고 그 대가로 미국이 중국 상품에 대한 기존 관세를 일부 인하하며 추가 관세부과는 유예하는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이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유예된 관세부과로 복귀하는 소위 '스냅백(snapback)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호 원장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

약력보기 ▶



최석영 고문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약력보기 ▶



임채민 고문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약력보기 ▶

미-중 무역전쟁의 장기화 움직임 속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자국이익을 앞세우면서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국가안보 위협을 근거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적용하여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율관세를 부과했고, 자동차와 그 부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인의 개인정보나 첨단기술이 미국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통해 특히 중국과 같은 해외로 유출될 리스크가 있다고 보고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을 입법,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면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강화하고 심의를 엄격히 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이후 일방적 무역제한조치 등 갈등을 유발시켰다. 또한 일본도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을 시작으로 나중에는 전반적인 전략물자의 한국수출관련 절차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비우호적인 조치를 취했다. EU 역시 철강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는 등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움직임이 목격되었다. 이러한 자의적이면서 일방적인 무역제한조치는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취해졌으며 WTO 통상규범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으로 구축된 글로벌가치사슬을 왜곡시켜 기업의 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신뢰가 계속해서 추락하고 지역무역체제도 동력을 상실하여 세계무역환경을 개선하는데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작년말까지 상소기구 위원을 충원하지 못해 WTO의 분쟁해결제도마저 근본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도하라운드 실패를 만회하고자 WTO 개혁논의를 해왔으나 진전이 미흡하고 다자간 무역자유화는 물론 새로운 통상규범 제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추가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일본과도 무역협정을 체결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CPTPP)이 조기 이행되기 시작했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선언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 내지 양자 FTA는 환영할 일이나 일방적 무역제한조치 증대와 보호무역주의 고조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RCEP의 경우 인도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다 회원국간 양허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기대를 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BREXIT 실행여부 및 그 후속과정의 불투명성, 홍콩사태 확대, 북-미간 비핵화 협상 지지부진, 중남미 정치 및 중동정세 불안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다. IMF 등 국제경제기구도 세계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으며 이번에는 무역(실물경제)이 그 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기창 변호사

T. 02-772-5904

E. kcc@leeko.com

약력보기 ▶



조영재 변호사

T. 02-772-4908

E. youngjae.cho@leeko.com

약력보기 ▶



주현수 변호사

T. 02-6386-6363

E. hyunsoo.joo@leeko.com

약력보기 ▶



진성백 회계사

T. 02-2191-3236

E. sbc@leeko.com

약력보기 ▶

2.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가중 전망: 일방·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에도 추후 이행문제 및 '2단계 협상'의 불확실성 상존
- 미국 중심의 신(新)통상규범 도입과 미 대선 이후에도 'America First' 정책 지속 예상
- EU의 강경한 통상정책 선회와 미-EU 통상분쟁 확대 가능성 고조
- 다자무역체제의 추락과 주요국들의 일방 및 보호무역주의 남발
- 미흡하지만 일부 메가 FTA 발효로 통상환경 개선 효과 기대

미-중 무역분쟁의 '1단계 합의' 이행여부와 새로운 분야로의 후속 분쟁 확산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을 전망함에 있어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역시 미-중 무역분쟁의 합의 여부와 그 내용이다. 양국이 작년 1단계 합의까지 마쳤으나, 서명 전 최종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1단계 합의에 서명되더라도 원만한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스냅백 조항으로 유예된 관세가 다시 부과됨으로써 후속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양측이 추진하게 될 2단계 협상은 국영기업, 보조금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 중국의 경제시스템을 개선하는 구조적 의제로서 양측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

2020년에도 반(反) 화웨이 정책을 비롯한 수출통제 및 투자규제 등 미국의 대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이다. 우선, 미국 첨단기술의 대외유출 통제를 위한 CFIUS의 기능강화로 중국 및 외국투자자의 대미투자 조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양국의 기술패권 경쟁과 병행하여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충돌 및 지난해 말 미 상원에서 가결된 '홍콩 인권법'으로 촉발된 정치 갈등은 역시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다.



최웅 회계사

T. 02-772-4932

E. woong.choi@leeko.com

약력보기 ▶



박정준 연구원

T. 02-772-4806

E. zjj@leeko.com

약력보기 ▶



이재원 연구원

T. 02-6386-6453

E. zjw@leeko.com

약력보기 ▶



강혜인 연구원

T. 02-6386-6556

E. zhi@leeko.com

미국 중심의 통상규범 도입과 'America First' 정책방향 유지될 것

미-일 무역협정이 1월 1일 발효되었고 USMCA 역시 상반기 이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무역협정의 경우 포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디지털 무역에 대해서는 한층 더 공격적인 자유화,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알고리즘 공개 및 강제 이전 금지, 서버현지화 금지 등을 담고 있어 새로운 디지털 무역환경의 규범을 제공할 것이다. USMCA 역시 디지털 무역 분야는 물론 환경(수산보조금), 지식재산권, 철강 및 자동차 원산지 규정, 노동, 의약품 등 분야에서 매우 까다롭고 미국에게 유리한 새로운 통상 규범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북미지역의 투자자들은 투자전략의 전반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당분간 미국의 통상정책 기본방향이 선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미국은 CFIUS 기능강화를 통해 외국인 투자 제한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그로 인한 중국과의 마찰은 지속될 것이다. 또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 적용 확대와 74년 무역법 제301조 적용 검토 등 'America First' 정책은 미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계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어 미국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제232조 조사는 이미 끝났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USMCA에 따라 쿼터에 합의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EU와 일본에 대한 조치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게다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를 포함해 미국의 6대 핵심산업으로 언급했던 항공기, 선박, 반도체 등 분야로 동 조치의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중국과 프랑스를 대상으로 했던 301조 조사 역시 추가조치 검토와 더불어 다른 나라, 다른 분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

미-EU 간 強대強 통상분쟁으로의 확전 가능성 제고

2020년 EU도 통상정책 기조를 강경 모드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집행위원장이 이끄는 EU 신(新)집행위가 지난해 12월 1일부터 본격 가동되면서 EU판 공격적 통상정책 방향을 천명하고 미국에 맞대응을 시사했다. 앞으로 미-EU 통상분쟁의 확대 가능성은 더욱 커졌고 양국 간 무역협상에 큰 갈등요인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이미 반대 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 실제 그 운영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도입 시 미칠 수 있는 산업계 파장 역시 예측하기 어려워 외국 공급자들의 고민은 깊어질 전망이다. 또한, EU가 체결한 무역협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통상감찰관제도(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를 신설하고 WTO 상소기구 기능 정지를 이유로 교역 상대국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 입장도 밝히는 등 2020년 EU의 통상정책이 강경 모드로 선회해 큰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가 소급하여 부과하고 있는 디지털세(DST)와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둘러싼 미국과의 대립은 올해에도 계속되고 항공기 관련 보조금에 대한 상호 보복 관세는 양국 갈등을 악화시켜 올해 글로벌 통상환경의 최대 불안 요소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다자무역체제 신뢰 회복 난망, 보호무역주의 확산, 다양한 지정학적 사태 발생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와 자유무역을 수호하려는 주요 국가의 리더십이 여전히 부재한 가운데 많은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보호무역조치를 지속적으로 구사할 것이다. 이미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을 비롯하여 중국, 인도, ASEAN 등 주요 개도국도 보조금 지급, 자의적 무역제한조치 및 무역구제제도 남용 경향이 뚜렷하다. 올해 6월 카자흐스탄에서 개최되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도 정지된 상소기구 기능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혁에 대한 큰 기대는 어렵다. 나아가 미국 및 EU 등이 WTO 규범을 무시한 일방조치를 강행하는 등 WTO 다자무역체제는 올해도 신뢰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세계경제 저성장과 다양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주의해야 한다. BREXIT 시한이 가시화되면서 관련 단기적 불확실성은 감소되었지만 당장 2020년말까지 정리해야 할 EU와 영국의 통상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합의될 것인지가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한-일 양국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강제징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통제조치의 완전한 해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홍콩 사태, 북미관계, 중남미 및 중동 지역 등과 관련된 지정학적 불안은 언제라도 세계경제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메가 FTA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와 국제투자 흐름의 변화

2020년 글로벌 통상환경은 여전히 전반적으로 불확실하고 불안정하지만 다소 긍정적 요인도 존재한다. 우선, 미-중 협상이 순조롭게 이행될 경우 두 국가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아 지난해 다소 주춤했던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의 1단계 합의 이행과정에서 중국이 보다 규범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자국 제도를 운영할 경우 투자 여건 역시 개선될 수 있다. 미-일 협정과 USMCA가 발효되면 높은 수준의 통상규범 도입이 기대되며 잠정 발효된 CPTPP의 이행도 힘을 보탬 전망이다. 다만, 미국 불참, 추가 회원국 가입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이다. 지난해 11월 정치적 타결을 선언한 RCEP은 USMCA, CPTPP와 자유화 수준이 상이하지만 고조되는 보호주의 환경 속에서 지역간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현재 인도가 협상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지 않아 올해 초 양허 협상까지 마무리하고 최종 타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고, 타결되더라도 무역 자유화에 대한 수준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에 따라 새로운 투자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세안과 인도는 기업들에게 2020년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3. 불확실성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비한 新글로벌 경영전략 세워야

-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후속분쟁 리스크 대응체제 강화
- 새로운 무역협정 이행과 'America First' 정책 지속에 대한 대비 전략 수립
- EU 정세 변화 대비 맞춤 전략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3법 대응전략 필요
-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지정학적 사태 주목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후속분쟁 리스크 대응체제 강화

①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및 대응능력 강화 필요

- 미국의 무역적자 정책에 대한 전략적 대응 마련
- 지나치게 높은 수출 성장으로 수입제한 조치의 대상 자초 위험 방지하고 각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글로벌 투자전략 검토 필요

② 미-중 공급사슬 분절화로 인한 리스크 대비전략 구축

- 대미수출 완제품 및 부품 조립·생산 관련 기존 글로벌가치사슬(GVCs) 및 역내공급망(RSCs)을 새롭게 구축
- 기본적으로 다변화를 추구하는 대외 통상·투자 전략 수립

③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전 분야 확산 가능성 대비

- 미국과 중국 간 (기술)패권 경쟁이 화웨이 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국제적 표준특허를 둘러싼 각축여건에 선제적 대응첨단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 선진 외국기업들과의 협력을 다변화하고 국내 핵심기술 및 인적 자원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미국의 강화된 CFIUS 절차를 숙지하고 미국 기업과 M&A를 모색할 경우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
-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협력기업 다변화를 추진하며 미국 외 영국, 독일, EU 선진국 기업을 기술·협력 파트너로 적극 고려
- 미-중 분쟁 합의 결과 지재권 보호, 외국인 투자 및 경쟁정책의 개편 등 중국의 통상여건 개선 가능성이 예상되며 이러한 중국의 시스템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필요

- 국제 인프라프로젝트 수행 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충돌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고 갈등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강구
- 단기적 이익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미-중 경쟁 간 전략적 선택 필요

새로운 무역협정 이행과 'America First' 정책 지속에 대한 대비 전략 수립

① 미국 주도의 신(新)통상규범의 적응 및 대응

- 미-일이 합의한 디지털 무역협정과 USMCA 내 디지털무역 챕터 정보 및 디지털 콘텐츠의 국경 이동 자유화 내용 파악 및 대응방안 마련
- USMCA 내 특히 철강 및 자동차와 관련된 원산지 규정을 숙지하고 그 조건을 만족
- USMCA 발효 대비 멕시코 투자 기업들은 부품 생산 및 조달 계획 포함한 투자전략 포괄적 검토 필요
- 또한 미국의 빈번한 수입 규제도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미국 현지 생산 공장 설립 및 기존의 현지 생산 능력 확대 고려
- 첨단 분야에 있어서 미국 내 R&D 센터 설립 및 미국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검토

② 제232조 조치 등 'America First' 정책의 장기화에 대한 포괄적 대응책 마련 필요

- 기존 대미철강조치와 관련해 수량규제를 면제받을 수 있는 예외품목 발굴 및 확대 노력
- 자동차 및 부품 대상 조치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 대응
- 해외진출한 우리 기업들도 한국으로의 유턴(U-turn)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지원책을 포함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

EU 정세 변화 대비 맞춤 전략 마련하고 국내 디지털 3법 대응전략 필요

① 신(新)집행부의 공격적 통상정책 방향 예의주시 -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신속한 대응 필요

- 미국식 일방주의와 유사한 방식으로 인식하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내 이해 당사자들과 네트워크를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역내 정책 진행 모니터링 강화
- 특히 통상감찰관 제도 및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대비해 기업들은 반덤핑 등 조사 가능성을 염두하고 EU 업계 동향을 계속 주시

② EU가 중시하는 환경·노동·디지털규범 등에 합치 노력 강화 필요

- 탄소국경세 등 기후 변화와 관련된 환경규범 시행 강화에 구체적 대응책 준비
- 양자 FTA에 포함된 노동규범 이행 강화 추진에 선제적 대응 필요
-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EU의 디지털무역 규범 전반에 대한 이해 제고 및 합치 노력, 특히 미국 및 일본 규범과 차이로 인해 수출자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어 선제 대응이 중요
- '데이터 3법' 등 국내법과 EU 등 선진국간 제도적 차이 발생시 통상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모니터링이 중요
- EU의 GDPR 대응전략 수립 필요

③ 브렉시트 진행 상황 모니터링

- 브렉시트가 확정되었으나 올해 말까지 영국과 EU의 무역협정 및 미래관계 관련 협상은 지속 될 것이므로 이 기간에 기존 EU 및 영국에 진출했던 우리 기업들은 EU와 영국에서의 새로운 영업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영국이 만들어갈 각종 규제 및 제도를 파악
- 2020년말까지 체결을 목표로 한 EU와 영국 간 협상 결과 및 통상관계 변화 예의주시
- 한-영 FTA 발효와 향후 한-EU FTA를 포함한 개정 가능성에 대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한 대응과 지정학적 사태 주목

① 주요국의 보호주의 및 일방주의에 대비한 선제적 전략 수립 필요

- 미국, EU 외 중국 THAAD 보복 또는 일본 전략물자 수출 통제 등 자의적인 무역제한조치의 재발 및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전략 필요
- 국내산업 보호 및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불공정한 외국상품 수입과 그 급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무역위원회 제소 적극 고려
- 한-일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단기간 내의 합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 장기화를 대비한 주요 소재, 부품, 장비 공급 대안 마련 필요 - 조달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 추진 노력 강화
- 홍콩사태, 북-미 협상, 중남미 및 중동 지역 정세 불안 등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체계 구축 필요
- CEO의 국제통상이슈 및 지정학적 변화 관련 지속적인 관심 유지 및 국내외 전문가들과 소통
- 미국, 중국, EU, 일본 등 주요국의 싱크탱크와 협력 관계 구축

② 메가 FTA 활용방안 마련과 ASEAN의 부상에 관심

- 최근 USMCA, 미-일 협정 및 CPTPP 등이 새로운 통상규범을 제정하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동 협정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대응전략(특히 미국시장에서 일본상품과의 경쟁 관련) 수립이 필요
- RCEP 이행 시, 통합원산지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지역가치사슬(RVCs) 및 RSCs 구축, 한-일 FTA 및 한-중-일 FTA를 맺은 것과 같은 효과에 대비 우리의 특실을 파악한 새로운 경쟁전략 수립
- ASEAN 지역을 중심으로 GVCs 및 RSCs 재편에 관심을 두고 새로운 전략 마련























▪ 용어 해설


























1. **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2. **CPTPP: 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Pacific Partnership**
3. **DST: Digital Services Tax**
4. **FIRRMA: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5.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6. **GVCs: Global Value Chains**
7. **MC: Ministerial Conference**
8.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9. **RSCs: Regional Supply Chains**
10. **RVCs: Regional Value Chains**
11.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12.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 2020년 세계 주요 정치·경제 일정



□ 주요 통상 일지(2019.6.30 – 12.31)

날짜	내용
6.30	 베트남, EU와 FTA 서명
7.4	 일본, 한국에 대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등 3개 핵심소재 수출규제 시행
7.8	 한국, 메르코수르와 제3차 TA 공식협상 개최(우루과이 몬테비데오)
7.9	 한국, 미국과 한-미 FTA 경쟁(제16장) 협의
7.10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 301조 조사 개시
7.11	 한국, 말레이시아와 제1차 FTA 공식협상 개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7.15-17	 한국, 필리핀과 제2차 FTA 공식협상 개최(필리핀 마닐라)
7.17-19	 한국, 중국과 제5차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최(서울)
7.26	 미국, USTR 통해 WTO 개도국 지위 관련 조사 개시
7.30-31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중국 상하이)
8.5	 미국, 달러대비 위안화 환율급등, 미국,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8.5-6	 한국, 말레이시아와 제2차 FTA 공식협상 개최(서울)
8.12-14	 한국, 필리핀과 제3차 FTA 공식협상 개최(부산)
8.21	 한국, 한-이스라엘 FTA 타결(이스라엘 예루살렘)
8.22	 한국, 한-영국 FTA 정식 서명(영국 런던)
8.23	 미국, 3,000억 달러 상당 중국산 제품 15% 추가관세 부과 및 현재 25% 관세 부과 상품 30%로 상향조정 예고  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 부과 예고
8.28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
9.1	 미국, 1,12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5% 관세 부과(list 4A)
9.1	 중국, 750억 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에 5~10% 관세 부과
9.4-6	 한국, 말레이시아와 제3차 FTA 공식협상 개최(서울)
9.10-13	 한국, 필리핀과 제4차 FTA 공식협상 개최(필리핀 세부)

날짜	내용
9.11	 한국,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WTO 분쟁절차 개시
9.13	 중국, 콩·돼지고기 등 미국산 농산물 추가관세 면제
9.18	 한국, 대(對) 일본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 '가'에서 '가의2'로 분류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9.19-20	 미-중 실무협상(미국 워싱턴)
	 미국, 중국산 제품 400여 개 신규 관세 면제 리스트 발표
9.25	 한국, 캐나다와 제3차 한-캐나다 FTA 공동위원회 개최(캐나다 오타와)
9.30	 한국, WTO 한-일 공기압 밸브 분쟁에서 최종 승소
10.1	 한-중미 FTA 발효
10.1-2	 한국, 러시아와 제2차 한-러시아 FTA 서비스·투자 협상 개최(서울)
10.1-4	 한국, 메르코수르와 제4차 TA 공식협상 개최(부산)
10.7	 미-일 무역협정 정식 서명, 2020년 1월 발효 전망(미국 워싱턴)
10.10-11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미국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발표(미국: 추가 관세 보류, 중국: 미 농산물 구매 합의)
10.15	 WTO, 미 '에어버스 보조금 보복' 관세부과 최종 승인
10.17	 EU, 브렉시트 합의안 만장일치로 승인
10.18	 미, EU산 제품 중 농산물에 25%, 항공기에 10% 관세 부과
10.20	 영국, EU에 브렉시트 3개월 연기 요청
10.21	 중국, WTO에 24억 달러 규모 대미 보복성 제재 승인 요청
10.25	 한국, 미래 WTO 협상에 한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
10.28	 한-영 FTA 국회 비준동의 통과, 브렉시트 시 자동 발효
	 EU, 브렉시트 2020년 1월 31일까지 탄력적 연기 승인
10.30	 칠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개최 포기
11.1	 중국, 미-중 반덤핑 분쟁 소송 WTO 승, 미국 제품에 36억 달러 보복관세 부과 인정
11.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타결 선언(태국 방콕)
11.25	 한국, 인도네시아와 한-인도네시아 CEPA 최종 타결(부산)

날짜	내용
11.27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부산)
11.27-29	 제16차 한-중-일 FTA 공식협상 개최(서울)
12.2	 미국, 프랑스 '디지털세'에 24억 달러 규모의 프랑스산 수입품에 최고 100%의 관세 부과하는 절차 착수
12.4	 미-일 무역협정, 일본 참의원 통과해 2020년 1월 1일 발효 예정
12.11	 미국-멕시코-캐나다, USMCA 수정안 타결
12.12	 영국, 조기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 1월말 브렉시트 확실히
12.13	 한국, 터키와 제4차 한-터키 FTA 공동위원회 개최(서울)  미-중, 1단계 무역합의문 공식 발표
12.17	 미국, 하원에서 USMCA 개정 이행법안 통과(2020년 1월 초 상원표결 예정)
12.19	 영국, 새 EU탈퇴법 공개, 정부의 브렉시트 권한 대폭 확대
12.22	 한-중-일, 경제통상장관회의 개최 및 공동성명 채택(중국 베이징)
12.24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및 '10년 협력'비전 성명 채택(중국 청두)  한-일 정상회담(중국 청두)

□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Issue Brief 발간 목록

❖ 2018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최악의 세계무역환경과 우리의 대응	박태호 원장(광장)	2018.7
2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규제 현황과 평가	최석영 고문(광장)	
3	EU의 무역구제규범의 현대화: 최근 규범 개정에 대한 분석 및 WTO 합치성 검토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4	Targeting China	Jeffrey J. Schott 박사(PIIE) Lucy Lu 애널리스트(PIIE)	2018.10
5	Moving from One Landmark to the Next: What the New EU-Japan EPA Means for Korea	이호석 박사(ECIPE)	
6	국제통상과 안보: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정기창 변호사(광장)	

❖ 2019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CPTPP on the Go: Next Step is Enlargement	Shujiro Urata(와세다대학교)	2019.1
2	The USMCA: What it Tells us about U.S. Trade Policy and What it Means for Korea	Richard O. Cunningham 변호사 (Steptoe & Johnson LLP)	
3	미국의 독자적 경제 제재와 기업의 딜레마	이현송 변호사(광장)	
4	BREXIT의 배경, 현황 및 전망	박성훈 교수(고려대학교)	2019.5
5	BREXIT에 대비한 "무역연속성협정": 영국-칠레 간 협정 분석을 중심으로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6	WTO 개혁 논의: 상소기구 개혁을 중심으로	김혜수 변호사(광장)	

❖ 2019년

7	다시 숨 고르기에 들어간 미중(美中) 무역분쟁, 그 다음 수순은?	이재민 교수(서울대)	2019.7
8	미중(美中) 무역협상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	장윤종 원장 (포스코경영연구원)	
9	Trade Policy Implications of the Digital Transformation	Sébastien Miroudot 박사 (OECD)	
10	미국 보호무역조치의 새로운 무기(new weapon), 통화보조금: WTO 보조금 협정 합치성 분석을 중심으로	주현수 변호사(광장)	
11	[Special Issue Brief]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통제와 우리기업의 대응방향	이재원 연구원(광장)	
12	[Special Issue Brief] 프랑스의 디지털세 도입에 맞선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디지털세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동향 및 시사점	허난이 연구위원(광장) 박정준 연구원(광장)	2019.8

❖ 2020년

No.	제목	작성자(소속)	발간시기
1	2020년 글로벌 통상여건의 불확실성과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2020.1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